



대행 스님

## 여러분이 있기에 부처님도 있고 불법도 있는 겁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질문받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항상 내가 그 말은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가족간에 친척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내 뜻으로 돌리고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이런 예가 있었죠. 수원에 어느 삼 형제가 사는 데 밥 하나라도 그냥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음식을 했어도 하나 주지도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서로 패고 들고 싸우고, 참 어렵게 살았답니다. 근데 어떻게다가 선원에 오게 됐어요. 선원에 오게 됐는데, 딱 보니까 말입니다. 나한테 작 오는 게 뭐냐 하면 '저렇게 위도 모르고 아래도 모르고 천방지축들이니 안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네들, 자식을 기르고 살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몇 남매나 났어?" 그러니까 오 남매를 났고 뭐 삼 남매를 났고 모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오다듬에 죽을 때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어제 자식들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럼 자식들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면 당신네 부모들은 어떻게 섬겼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푹푹 떨어뜨리더군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양면을 다 얘기를 해 줬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에게 방바닥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보지도 않고 불을 때서 엉덩이가 다 타서 죽게 만들고, 죽고 나서도 그냥 깔고 있던 그걸로 그대로 두루루 말아서 갖다가 넣는 게 어딤어?" 그랬더니 고개를 푹 떨어뜨리면서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는 거죠. "아,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알지 당신이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랬어요. 그때부터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 삼 형제는 아주, 모두 오 남매인데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다 잘 지내던지 정말이지 잘 살게 됐답니다. 외국도 가게 되고요.

그런 거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기간이나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배척을 해서 버리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 안에 넣고 '응, 모자랄 때 내 모습과 같아. 그러니까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저절로 잘될 것이고 저절로 복덕이 아니라 공덕을 받게 되고, 저절로 집안이 아주 유하고 광명이 스스로 들어서 하나

도 애고 없이 잘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만나면 사랑하고 만나면 즐겁게 웃고 말입니다. 자식들도 마음과 마음으로 붙들고, 남편 부인도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붙들어야 몸은 붙들려고 그러고 말로 해서 붙들려고 그런다면 붙들 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붙든다면 육체는 저절로 붙들어지죠. 허허하... 그 도리가 아주 묘한 도리인 줄 아셔야 될 겁니다.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가 붙들어지고 육체를 붙들어야 화목도 붙들어진다구요.

우리가 몸을 붙들려고 "예이, 이놈의 개새끼, 소새끼!" 하고, 허허하... "너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그 고생한..." 아, 고생을 했으면 같이 고생을 했지 뭐 혼자만 고생했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까리까리 모여 있죠?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있죠? 그와 같이 여러분도 까리까리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게 까리까리 만났으니 그저 '한마을 주인공! 너무나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럽게 해 주고, 부드러운 말 해 주고, 부드럽고 정답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해 준다면 너무나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될 겁니다. 아아, (대중 박수)

부처님 법이 경전에만 있고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님 법도 없을 거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법도 있는 겁니다. '일체제물의 마음' 그 노래를 했죠? 노래를 한번 해 보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 법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불교입니다. 불교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근본이 불이고, 말과 마음과 서로 통하고 돌아가는 게 교이고, 그러니까 불교는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네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 자체가, 바로 살릴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이자 도입입니다. 도도 단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생활 속에 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하나만 잘 쓰면 물리가 터지고 지혜롭게 돼서 공덕을 크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여)** 스님, 오랫동안 좋은 법문 들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불교와 생활이 둘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주인공한테 항상 맡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인공한테 항상 맡기면서도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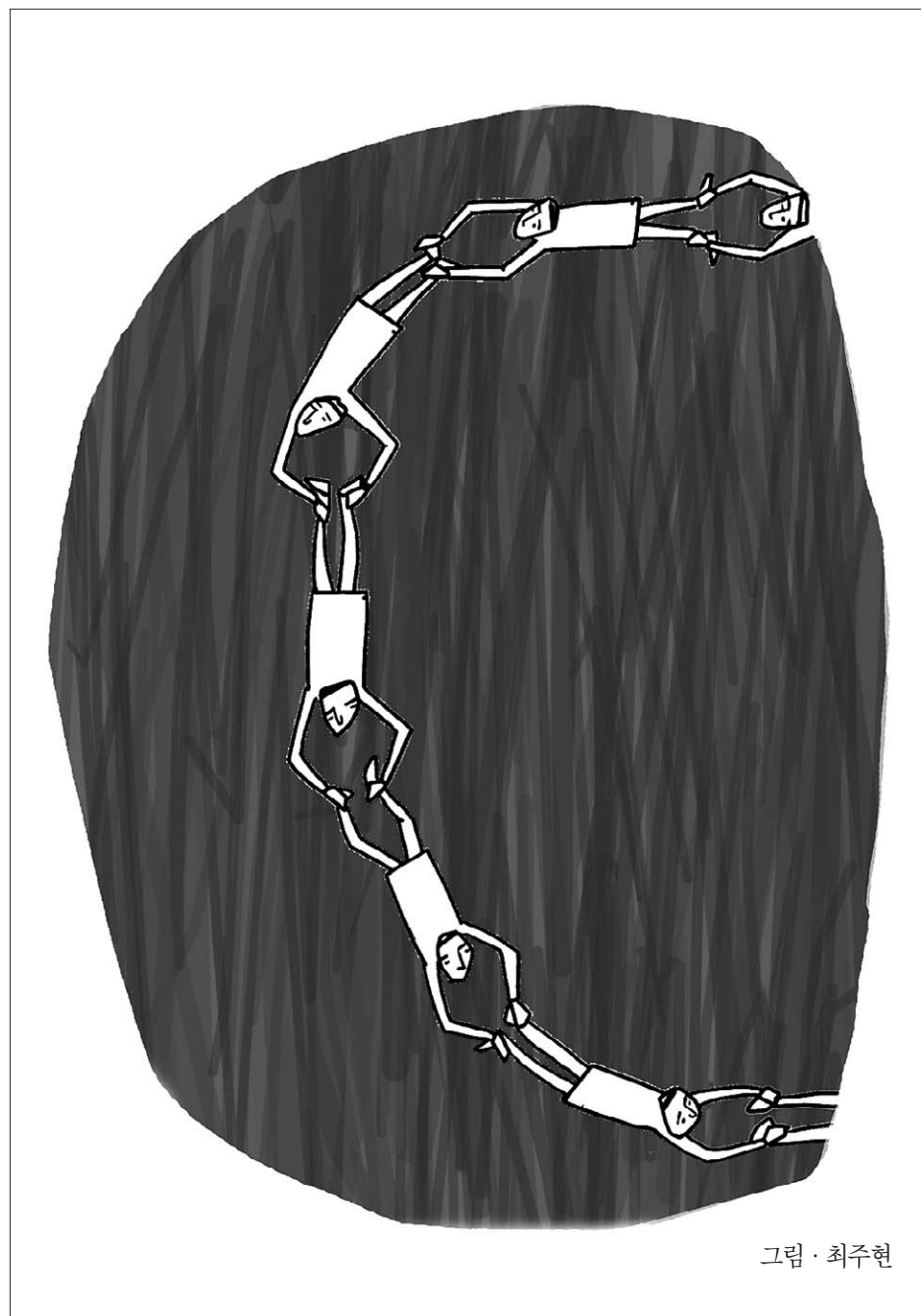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맡기면서도 주인공한테 관하는 방법이 올바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고 항상 의심이 조금씩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주인공한테 잘 관하는지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여쭙게 말해 주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 말하는 자체가 바로 그 주인공 놀이라고, 말

하게 하는 놈 자체가 바로 주인공 놀이예요. 그러니 믿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어요. 허허하...

**질문자2(여)** 감사합니다. 스님께 어려운 일 병고 액난을 하소연했을 때 스님께서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관하세요."라고 하십니다. 관하는 도리를 통해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할 경우

에, 병이 낫는 까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여쭙게 말했지 않소? 회사를 다스리는 회장과 같아서 바로 내 몸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그 회장의 결정 하에 작용을 한다고. 내 몸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는 데에 따라 작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믿지도 않고 마음도 정하지 않는데, 결재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일을 합니까? 그와 같이 내 몸속에서도 결재를 해야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질문자3(남)** 무량법문 잘 들었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도 어렵듯이 알면서, 막상 선원을 떠났을 때 그 도리를 실천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스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심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관한다고 함은 곧 지켜보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엇을 지켜보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 자기의 마음이 현재 상태를 지켜보는 것인가?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놓고 가는 것인가? 이래저래 생각해 볼 때마다 여전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스님 가르침 청합니다.

**스님** 마음이라는 건 허공과 같아서 마음이 요거 한 가지를 생각했다면 고정되게 고거 한 가지만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요 마음으로도 화할 수 있고 조 마음으로도 화할 수 있죠? 금방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또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게, 자기 마음 근본에다가 딱 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이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이라 그러는 건 이름이예요. 그러나 수천수만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참 선(禪)이예요. 그리고 관법이예요.

그러니까 돌건을 한번 실험하려면, 밥을 짓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무엇을 하나 해도 실험해 보려면 한번 놓고 지켜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그렇게 거기 맡겨 놓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거기 놓고 지켜보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게 실험이요, 그것이 지나가면 바로 체험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놓고 관하고 지켜보고, 관한다는 게 지켜보는 거니까 둘 아닌 지혜로운 마음

26면으로 계속

##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회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일반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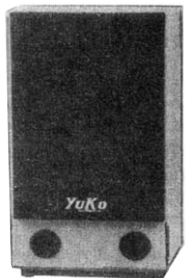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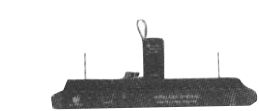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전용 스피커**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성인병(당뇨·고혈압) 예방

##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께서 구경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